

전남도, 中 기업과 5000만弗 규모 ESS 생산공장 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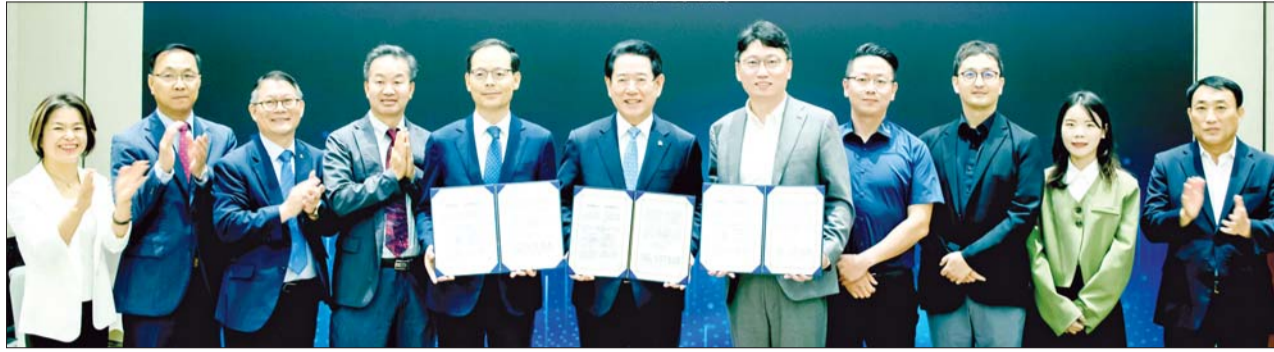
(에너지저장장치)

나라다社, ESS 분야 中 1위 기업
광양만권 율촌산단에 들어설 예정
해상풍력 등 조성 위한 선결과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2일 중국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나라다사와 5000만 달러(약 6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해 전남 이차전지 등 산업 분야 세계 중심지로 우뚝 설 기반을 마련했다.

중국을 방문 중인 김영록 지사는 상하이 훙차오 힐튼 호텔에서 송상락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박송철 나라다에너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만권 율촌산단에 에너지저장장치 생산공장을 건립기로 하는 투자협약식을 가졌다.

나라다사는 세계 160개 나라에 진출해 매출 2조 5000억원을 달성한 에너지저장장치용 리튬인산철 배터리 및 에너지저장장치 장비 제조 분야 중국 1위 기업이다. 리튬인산철배터리 셀과 에너지저장장치 장비 제조, 배터



중국을 방문 중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지난 22일 상하이 훙차오 영빈관에서 '전남도-나라다에너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상락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송철 나라다 한국법인 대표.) /전남도

리 리사이클링 등 에너지저장장치 산업 전 주기를 구축하고 있다.

정부는 2036년까지 45조원 규모인 26GW의 에너지저장장치 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 지난 1월 안정적 전력망 구축과 세계시장 진출 전략 수립을 위한 '에너지저장장치 산업정책 로드맵(TF)'을 출범했고, 지난 6월 국회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전남은 대한민국 해상풍력·태양광 잠재량 및 발전설비 용량 1위를 차지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가 역점 추진하는 세계 최대 신안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 해남 솔라시도 1GW 태양광발전단지 등 조성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에너지저장장치 산업 생태계 구축이 선결과제다.

광양만권은 포스코 제철, 여수화학단지, 배터리소재 등 이차전지 제조 기반이 잘 갖춰져 리튬인산철, 배터리 제조 후 배터리관리시스템, 전력변환장치, 에너지관리시스템

을 통해 해외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최적지다.

김영록 지사는 "광양만권 율촌산단은 대한민국 최대 이차전지 소재·부품 기지로서, 산단 내 에너지저장장치 생산공장이 들어서면 에너지 활용 분야에서 큰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전남이 세계적 이차전지 및 에너지저장장치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것"이라며 "이번 투자협약이 꼭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영덕군

침수예방에 국비 45억 추가

영덕군은 축산면 축산항 일원에 추진하는 도시침수 예방사업에 국비 4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총사업 규모가 기존 155억 원에서 65억 원 증가한 220억 원으로 진행돼 성공적인 사업추진의 초석을 다졌다.

축산면 축산항 일대는 호우시 침수가 잦은 지역으로, 지난 20년 환경부로부터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국비 108억 원, 총사업비 155억 원의 규모로 '축산 배수 분구 도시침수 예방사업'이 추진하게 됐다.

/영덕(경북)=김종철 기자 kimjongseol@

안동시

中 시안시와 인문·관광 등 교류

경북 안동시는 실크로드 출발지 중국 시안시와 인문·문화·관광 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식은 전날 중국 그란델리아호텔에서 열린 실크로드 경제벨트 원탁회의 및 도시관광 국제회의 개막식 행사와 함께 진행됐다.

안동시와 시안시는 향후 긴밀한 교류 관계를 구축해 인문, 문화, 관광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사업을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장은 이 자리에서 예니우핑 시안시장을 '2024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및 '21세기 인문·문화포럼'에 공식 초청했다.

권 시장은 "지방정부 간 국제교류 모범도시로 함께 발전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동(경북)=정영우 기자 ycyw57@

남해군

신항만 조성 타당성 분석 착수

남해군이 복합 기능항만(여객·화물·어업 등) 조성을 위한 '항만 입지 및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한다.

현재 남해군에는 111개의 어촌·어항이 있으나 여객선 등 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항만시설은 전무하다. 대형 작업선 등이 기존 어항에 정박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어항 시설이 파손되는 등 여러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남해군은 항만 조성을 위한 첫 걸음으로 '항만 입지 및 타당성'에 분석에 나섰고, 오는 2024년 3월까지 용역을 진행한다. 남해군은 용역 결과물을 바탕으로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남해군 신항만 조성을 반영시킨다는 계획이다.

/남해(경남)=이도식 기자

울산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1위

효율적 공정운영에 국무총리 표창

하수도 분야 직영社 중 가장 우수
건전한 재정·재난대비서 인정받아

울산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전국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9개 광역 자치단체 하수도 분야 직영기업 중 1위를 달성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9월 22일 지방공기업의 날을 기념해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8회 지방공기업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다.

이는 1994년 경영평가 제도 진행 이래 울산시가 거둔 최고의 성과로 최적의 하수환경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로 입증된 셈이다.

이번 평가에서 울산시는 건전한 재정 운영, 재난에 대비한 철저한 대책 수립, 관리자 지도력(리더십) 발휘 등

에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효율적인 공정 운영 분야에서 탁월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분류식 하수관로를 100% 설치해 빗물과 생활오수를 따로 이송해 도심 하천에 오·폐수 노출이 없도록 관리하는 등 울산시가 오랜 기간 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수도 경영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의 지방공기업에 대상으로 격년제로 평가를 진행한다. 지속가능 경영,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 등 3개 분야 18개 세부지표에 대해 서면심사와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에서 순위를 결정한다

/울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고흥군, 미래항공산업 주도권 선점 나서

고흥 드론·UAM 엑스포 행사 개최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우주를 넘어 항공분야에서도 주도권 선점을 위해 빠르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군은 오는 11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고흥항공센터 일원에서 제1회 고흥 드론·UAM 엑스포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전라남도도와 고흥군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가 주관하며,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다. 엑스포는 미래항공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하고, 미래 100년을 내다본 지역의 먹거리 산업 생태계 조성 행보를 가속화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우주항공산업의 지역적 호기를 맞이해 드론·UAM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엑스포 행사장을 UAM존과 드론존으로 나눠 다채롭고 풍성하게 꾸밀 계획이다.

UAM존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그랜드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는 실증기업에서 눈여겨 볼만한 UAM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로 전시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드론존에서는 현재 실생활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드론 기체 등이 전시되는 것은 물론, 국방 무인 정찰 드론까지 볼 수 있는 전시 공간과 드론판매부, 드론농구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고흥(전남)=양수영 기자



해남 오시아노 오토캠핑장 전경.

전남 해남서 110개 캠핑社 모여 전시·홍보

'전남 캠핑관광 박람회' 개최

국내 최대 규모로 기획된 캠핑관광 박람회가 전남 해남에서 열린다.

전남도와 해남군은 '2023년 전남 캠핑관광 박람회'를 오는 10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해남군 오시아노 오토캠핑장에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회째인 박람회는 '모두의 캠핑'을 주제로 캠핑 장비와 캠핑용품 전시·판매가 이뤄진다.

지난 6월부터 오시아노 오토캠핑장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예약 접수를 받아 현재 700개 팀 3200여명이 참여를 확정했다.

박람회 첫날에는 스노우라인, 호상사, 캠프밸리 등 대형 캠핑기업을 비롯해 110개 기업이 150여개 부스를 설치하고 캠핑용품 전시·홍보를 시작한다. 박람회 개막을 축하하는 열기구 체험과 낚시대회 등 각종 체험도 진행된다.

/무안(전남)=양수영 기자

순천시, 스마트팜 재배 배양액 개발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일환

순천시(시장 노관규)와 순천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소(이하 순천바이오센터)는 지난 7월 최종 선정된 300억 원 규모의 전라남도 대규모 프로젝트인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팜 재배 배양액을 개발하며 성공적인 사업 시작을 알렸다.

순천시는 '그린바이오'를 시 5대 전략산업으로 추진하며 '생물전환 산업 111 프로젝트'를 통해 연구소별 위기의 승주업 일원을 생물전환 그린바이오 특화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순천바이오센터는 2022년 해양수산부 '유망기술 Scale-up 사업'에 선

정되어 연구개발한 끝에 다시마 배양액 제조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전남 완도군 소재의 '바다품에' 기업에서 버려지는 다시마, 미역 등 해조류를 활용해 스마트팜 식물재배에 사용되는 배양액 개발 및 산업화를 목표로 기술 개발해 지난 20일 '다시마 발효 배양액을 포함하는 스마트팜 새싹인삼 재배용 양액 조성물'의 기술이전 협약식을 진행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에 성공한 새싹인삼 스마트팜 재배 표준화 배양액 제조 기술은 향후 진행될 전남형 균형발전 300 사업인 '생물전환 산업 111 프로젝트'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건설근로자공제회 부산지사

특산품 활용한 체험활동 실시

건설근로자공제회 부산지사가 24일 건설근로자 가족 60여명을 대상으로 마을 특산품 다시마를 활용한 천연비누 만들기 체험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어촌어항공단 협력마을인 기장 공수어촌체험휴양마을이 행사에 함께했다. 공제회는 "ESG경영과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 협력체계 구축이 목적"이라며 "공제회-공수어촌체험휴양마을 자매결연 활동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